

## 나가사키 평화선언

지금 우리 인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 없는 세계」로의 길이며 또 하나는 64년 전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 같은 파괴를 되풀이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올해 4월, 체코의 프라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겠다고 명언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전략무기삭감조약(START) 교섭을 재개하고,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지하에서도, 우주공간에서도,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비준을 진척시키고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의 체결에 노력하는 등,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 행동해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피폭지에서도 감동의 물결이 퍼져 나갔습니다.

핵의 초강대국 미국이 핵무기근절을 향하여 드디어 한 걸음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5월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이 2번째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핵 억지력에 의지하고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러한 위험한 국가나 테러리스트가 나타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를 단호하게 폐기시킴과 동시에 핵보유 5개국들은 자국의 핵무기 삭감도 진척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영국, 프랑스, 중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군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욱 철저한 핵근절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작년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호소한 「핵무기 금지조약」(NWC)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북한은 물론 핵무기보유 의혹이 있는 이스라엘, 핵개발 의혹이 있는 이란에도 참가를 요구하여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프라하연설을 지지하고 피폭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헌법에 나와 있는 부전(不戰)과 평화의 이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비핵삼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하며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의 실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메드베데프 러시아대통령, 브라운 영국수상,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 그리고 싱 인도수상, 자르다리 파키스탄대통령, 김정일 북한 총서기, 네탄야후 이스라엘수상, 아흐마디네자드 이란대통령, 그리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부디 피폭지·나가사키에 한번 와 보십시오.

원폭자료관을 방문하시어 지금도 많은 유골들이 묻혀 있는 피폭지에 서 보십시오.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의 나가사키. 강력한 방사선과 수 천도에 이르는 열선과

맹렬한 폭풍에 의해 파괴되고 어마어마한 불길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폐허의 정적. 7만 4천명이나 되는 희생자들의 침묵의 외침. 7만 5천명이나 되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 이러한 희생자들의 억울함에 누구나가 떨리는 마음을 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간신히 살아 남은 피폭자들과도 여러분은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이 된 지금도 방사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로 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폭의 경험은 공유할 수 없으나 핵무기근절을 목표로 하는 의식만은 공유할 수 있다고 믿으며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열의에도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나가사키에서는 「평화시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국내외의 NGO가 모여 「핵무기근절-지구시민집회 나가사키」도 개최합니다. 내년에 열리는 핵확산방지조약 재검토 회의를 향하여 시민과 NGO와 도시가 결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나가사키 시민들은 오바마대통령이 피폭지·나가사키를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서명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주역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지도자나 정부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말로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생활 속에서, 프라하연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로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함께 가지지 않겠습니까?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폭자들은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피폭자 구제의 차원에서 현실에 입각한 원조를 서두르기를 다시 한번 일본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삼가 원자폭탄에 의해 돌아가신 여러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핵무기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며 여기에 선언합니다.

2009년 8월 9일

나가사키시장 다우에 도미히사(田上 富久)